

정유4사, 과점 버리고 경쟁해야...

시장진입 어려워 경쟁 없이 높은 가격 유지 ... 국민석유 역할 기대

석유 시장을 과점구조에서 경쟁구조로 바꾸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대 운동본부 이태복 상임대표는 사단법인 5대 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석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한 기름



값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석유 시장이 자유로운 경쟁이 어려운 과점구조이기 때문에 기름 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라며 “2012년 정유4사가 국내시장에서 GDP(국내총생산)의 16%가 넘는 167조원의 매출을 독과점하고 있으나 석유 원가 등의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로 감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독과점이 지속되는 이유로는 비축의무제, 저장시설 기준, 수입 관세 및 수입 부과금 등 석유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지나쳐 중동에 분쟁이 생기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아시아·아프리카 등 원유 공급처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알뜰주유소 등 정부의 정책으로는 부족하다”며 “독과점 체제를 없애고 자유로운 경쟁으로 공정한 시장 가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생연대 이선근 대표는 “국민소득 대비 에너지 가격이 높다”며 “국민석유는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을 20% 가량 싸게 공급하기 위해 출범해 국민주 방식으로 자본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0/10>